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

1. 말씀읽기: 루카1,57-66.80

⁵⁷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⁵⁸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⁵⁹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⁶⁰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⁶¹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⁶²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랴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⁶³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⁶⁴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⁶⁵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⁶⁶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⁸⁰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작명

즈카르야와 엘리사벳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보다 앞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엘리야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요르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아 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도록 파견된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공생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셨지만, 당신의 겸손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레자 요한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1,29)라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잘못을 하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 제물을 보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물을 바쳤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세상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몸소 인간이 되셨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계획에 온전히 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세레자 요한이 세상에 드러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면 세레자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질문 1: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세레자 요한입니다. 원래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 ① 엘리사벳의 남편 즈카르야가 사제직무를 수행하며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하느님의 천사를 만났고,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 주었지만 즈카르야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부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즈카르야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는 즈카르야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병어리로 지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즈카르야는 아홉 달 동안 병어리로 지냈습니다.
- ② 하느님의 은총으로 엘리사벳과 즈카르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이의 부모님도 기뻐했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질문 2: 우리 친구들을 낳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 ① 너무 너무 기뻐하셨다.
- ② 슬퍼했다. 이렇게 못생기고, 귀찮은 아이가 왜 태어났을까?^*^
- ③ 부모님께 여쭙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

부모님들은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사랑을 드리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짧은 글로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레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날의 예절은 사제의 권리가 아니었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또 여자라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즈카르야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엘리사벳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면(레위12,4) 여인은 산후 40일 동안 집 밖으로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할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느님과 맺는 계약의 표시였기 때문에 어린이가 뽑힌 백성의 한 사람이 되는 이날, 새로 이름을 지어 줍니다.

질문 3: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① 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지어 주는 것도 유다 관습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주려고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부부가 나이가 많으니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 ② 아버지 즈카르야가 말을 못하니 주변 사람들이 “복 치고 장구 치고” 제 맘대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즈카르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 ③ 하느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그 이름대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즈카르야였지만 아내 엘리사벳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겠어.”

질문 4: 친구에게 충고를 하거나 권고를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조언을 청할 때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

.....

아이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엘리사벳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 즈카르야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이 행동은 엘리사벳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즈카르야를 제멋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질문 5: 친구와의 대화중에 친구를 무시하는 말과 친구를 존중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의 무시하는 말을 아래의 존중하는 말들 중에서 찾아서 바꿔 보세요

- 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 ()
- ② “그것도 못 하나? 진짜 노답이다.” ☞ ()
- ③ “진짜 아싸 같다.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나?” ☞ ()
- ④ “너 이번 시험 망했다며? 재 반만이라도 닦아봐라.” ☞ ()

..... 아래

- ㉠ “와, 너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구나! 되게 독특하고 멋지다.”
-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의견도 일리가 있어.”
- ㉢ “처음엔 다 어려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다시 해보자.”
- ㉣ “점수 때문에 속상하겠네. 그래도 지난번보다 이 과목은 많이 올랐던데?”

질문 6: 말 못하는 즈카르야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해 주신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도 믿지 못하여 지금까지 병어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 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 ② 그 이름은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순간, 비로소 병어리로 살게 된 벌을 끝내게 되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터져나온 말은 불평이 아니라 찬미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즈카르야는 기뻐합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양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느님을 찬미하다가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등을 돌리는 저 자신이기에 즈카르야의 모습은 존

경스럽게만 보입니다.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생활 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는 욕, 비방, 이 간질, 상처 주는 말, 욕심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버리고 좋은 말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만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습니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질문 7: 소문을 들은 이웃들은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라며 기대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하느님의 기대와 부르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

부모는 보통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며,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당연히 기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 안에서 당신께서 바라시는 ‘고유한 사명’에 마음 쓰십니다. 부모는 내 뜻을 자녀에게 투사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기도하며,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리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 8: 주님의 손길이 세례자 요한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자녀의 삶에 내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하느님의 손길은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

.....

.....

많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이나 통제로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보살피신다’는 은총을 믿는 부모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께 위탁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걱정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아이를 이끄실 것임을 믿으며 기도와 신뢰로 지켜봐 주는 인내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아이도 만족하고, 부모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느님의 섭리는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늘 나에게 기대합니다. ‘이런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 녀석이 커서 뭐가 될까? “무엇이 적성이 맞을까?”하면서 궁금해 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대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갑시다.

3. 정리해 봅시다.

- ① 오늘 말씀 중에서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

.....

- ② 내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지요? 내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

.....

.....

- ③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미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

.....

.....

4. 실천사항

부모님께서 주신 내 이름을 더욱 당당하게 만들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해보기

5. 말씀으로 기도하기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resembling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느님 아버지!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등으로 말씀에 감동받은 부분을 가지고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말씀 중에서 와닿는 말씀(감동, 기쁨, 사랑, 행복, 통회, 감사, 열정 등)을 한 구절 선택합니다. 그 말씀으로 전체를 바라보며 기쁨 속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있습니다/되었습니다./~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기쁨과 행복, 사랑, 감사, 열정, 잘못된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통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결심을 하기 위해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제가

하소서/ 주소서/~ 도록 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사항을 2-3개 정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그 결심(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

광을 드리게 하소서.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착한 행동과 사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형제자매들에게는 작은 모범이 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